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이번주 마무리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오는 14일 최씨와 안종범(8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동민(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 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리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투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 검사팀은 최씨에게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입학 및 학사 특례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특검의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의 재단·뇌물 수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사건이 방대해 심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그 이상의 심리 기간을 볼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도 함께 맡은 재판부는 장씨의 결심 공판 후 약 4주 뒤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씨의 이대 화사비리 사건은 지난 달 14일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

재단 출연 강요·삼성 뇌물수수 등 안봉근·이재만 국회 불출석 선고도

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1명의 1심 선고도 13일 내려진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사건이었다”며 “안 전 비서관 등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좌절감을 줬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근혜(86) 전 대통령 재판도 재개된다. 재판부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공판을 잇따라 연다.

재판에는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

술회관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정부비판 성향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정황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결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다음 해 1월 중 선고가 내려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는 장시호씨와 고영태(41)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장씨 등은 앞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정유라씨 자택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심변 우려로 나오지 않았다.

고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혐의 재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과 노승일(41) 전 K스포트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은 11일과 15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씨의 가족회사 정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공판도 12일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스



눈 내리는 산천어마을 강원 영서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0일 화천읍내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다.

광주지역 대형 공사 부당 시공 등 무더기 적발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해 부당 시공과 설계 소홀, 공사비 낭비 등 부적절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8일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대형 공사 현장 11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장동주민센터 부당 시공 등 모두 1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과 주의, 공사비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무원 13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주치를 내리고, 건축사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시공사 6개에는 벌점을 요구했다. 과다지급한 공사비 1억4900만원은 회수토록 했다.

감사 결과, 11억4000만원이 투입된 봉구 총장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는 당초 설계도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형 거푸집을 내역서에 끼워 넣는가 하면 소나무, 단풍나무 등 조경수 70여 그루를 심지 않고도 관련 사업비를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10억 8900만원 상당의 장등동 개수공사의 경우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뤄지면서 노견부 파손을 침하 균열, 골재 탈락, 캡 탈락, 볼트 고정 불량 등의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해 보완시공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무시민공원 관광화 사업에서는 설계상 양간디를 심도록 돼 있으나 한국간디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구 농성동 주민센터의 경우 신축 과정에서 기초파일 길이를 6m로

부실 설계했다가 뒤늦게 11.5m로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부실, 옹벽 펜스 설치 공사 부당 시공, 설계도와 다른 원형기둥 부당 시공, 감리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예산 낭비 등이 무더기 노출돼 징계, 훈계, 주의, 벌점 등의 페널티를 받았다.

이밖에 남구 다목적체육관, 광산구 선운도서관, 청소년문화집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상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서은홍 기자

캘리포니아 산불 성탄절까지 진화 못할듯

6일째 불타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이 샌디에이고 인근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철의 치명적인 대형산불이 이제는 ‘새로운 일상’(the new normal)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브라운 지사는 이날 거센 불길로 한 명이 죽고 수백가구가 전소된 벤추라 카운티 일대를 돌아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캘리포니아는 가뭄과 기후변화로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어 이번 처럼 엄청난 산불이 ‘새로운 일상적 현실’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캘리포니아주는 인명과 수십억달러의 재산 피해를 내는 대형산불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강풍과 건조한 기후 때문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도 계속 불길과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내와 해외에서 담지하고 있는 “영웅적인” 진화작업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미 의회가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에 더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지난 1주일간 남부 캘리포니아를 휩쓴 산불로 약 800채의 주택과 빌딩들이 전소한 것으로 주 당국은 수정 발표했다. 산타 애나로 불리던 이번 강풍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북부의 벤추라 카운티에서는 새로운 산불이 6개나 발생했고 불길은 샌디에이고를 향해 남하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6일 불길에 피해 당이었던 운전자 한 명이 차량사고로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불길은 캘리포니아주의 자랑이며 별종위기종 콘돌의 서식지인 로스 파드레스 국립수목원을 향해 퍼져가고 있다.

표류北 목선서 일제 밤습 등 발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앞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북한 목조 선박 안에서 일제 밤습과 선외기 등도 발견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홋카이도 경찰은 북한 선박에 타고 있던 3명이 무인도 오두막에서 발전기 엔진을 훔친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의 수색에서 발전기 엔진 외에도 일제 선외기 등이 발견되자 지역 어업은 곧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방침이다.

이 북한 목선은 지난달 28일 홋카이도 마쓰미에초(松前町) 앞바다의 무인도 마즈마에(松前)섬에 정박해 있는 것이 발견 됐으며 선장과 선원 2명 등 3명이 9일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일본제 밤습과 선외기, 소형 발전기 등은 마즈마에섬의 오두막에서 반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일부는 현지 어업의 소유물과 특징이 일치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어업은 오두막이나 어선에서 50점 이상의 물품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한 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방침이다.

이라크, IS와의 전쟁 종식 공식 선포

이라크가 9일 이라크 영토 일부를 점령했던 이슬람국가(IS)를 이라크로부터 추방하기 위한 3년 넘게 이어져온 IS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라크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라크는 IS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밝혔다.

하이메르 알-아비디 이라크 총리 역시 바그다드에서 “이라크군이 이라크-시리아 국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시(IS를 비하하는 말)와의 전쟁이 종식됐다고 선포한다”고 말했다.

압둘 아미르 라시드 아르 알라 이라크군 사령관은 성명에서 “다에시를 향한 전투 작전은 끝났다. 이라크는 다에시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으며 이라크-시리아 국경은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IS는 지난 2014년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하는 등 한때 이라크 전체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은 올해 초 모술을 재탈환하는 등 지난 3년 반 동안 IS가 점령했던 지역들을 모두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IS는 그러나 여전히 테러 공격을 계속하는 등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IS와의 전쟁으로 이라크에서는 약 300만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으며 국토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이라크는 재건을 위한 힘겨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포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